



유로존 은행동맹 합의 결렬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로존은 은행동맹 추진에 대해 이견을 보임.

- 그리스와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가 정점에 달하였던 2012년 6월 모두의 동의를 얻어 상정되었던 은행동맹 설립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짐.¹⁾
- 유로존은 11월 말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안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유럽발 경제위기 국면이 전환될 조짐을 보였으나, 은행동맹 추진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 및 세계경제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짐.²⁾

■ 12월 4일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제3자인 영국과 비유로존 국가들의 이견도 나오면서 은행동맹 설립은 합의에 실패함.

- 독일, 스웨덴, 오스트리아 등은 중·소형 은행을 제외한 대형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감독기구 설립을 주장
 - 독일은 첫째, 모든 독일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화 감독기구 설립(안)은 독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어려우며 둘째, 단일화 감독 기구가 유럽 내 6,000여개 은행 모두를 감독할 수 있다는 발상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
 -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유럽중앙은행(ECB)을 은행 감독기구로 세우는 안에 대해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³⁾
 - 체코와 불가리아, 폴란드 등 비유로존 국가들은 은행 감독기구 설립으로 금융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우려⁴⁾

1) 당초 EU 정상들은 은행 감독기구를 2013년부터 작동시키는 데 합의하였음.

2) IMF, 세계은행 및 EC 등은 유로존 은행동맹을 유럽 재정위기 해법의 핵심 과제로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함.

3) ECB가 통화 정책권과 은행 감독권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주장. Financial Times는 통화 정책권과 은행 감독권을 분리할 수 있는 방화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ECB 조항을 바꾸어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.

- 반면, 독일의 의견에 반대하는 프랑스, 벨기에 및 ECB 등은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함.
 - 프랑스와 벨기에는 은행동맹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은행 감독 수준 등 질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
 - ECB는 은행감독기구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로존 신뢰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기구 설립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
 - 한편,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은 유로존 역내와 역외의 의견을 동시에 반영하는 이중다수결제를 주장하면서 연합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도 거부권을 달라고 요구
- 주요 외신들은 12월 중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 감독기구 설립(안)이 합의 되더라도 유럽 의회와 독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2012년 내에 은행 감독 기구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Financial Times는 프랑스와 독일, 영국이 각자 목소리를 내며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인 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고 진단함.
 - 전문가들은 12월 중순 유로존 재무장관들 회의에서도 은행 감독 기구 설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.

(Financial Times 등, 12/5)

4)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이들 나라들은 자국 감독 당국의 권한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함.